

사상체질진단을 위한 사상체질분류검사지 II (QSCC II)의 연구 (문항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우* · 이의주** · 최선미*** · 김중화* · 정성일* · 이현민* · 김종원*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QSCC II For The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Around The Analysis of subjects)

Kim Young-Woo* · Lee Eui-Ju** · Choi Sun-Mi*** · Kim Jung-Hwa* · Jung Sung-Il* · Lee Hyun-Min* · Kim Jong-Won*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rpose :

This study had focused on evaluating the QSCC II for the elevating accuracy and the designing new Questionnaire.

Methods :

QSCC II was administered to 1051 patients who had been treated in the Dong Eui Oriental Medical Hospital and Kyung Hee Oriental Medical Hospital during 19 months from sept. 2000 to mar. 2002. We analyzed all subjects of the QSCC II.

Result :

1. In the analysis with all subjects of the QSCC II,
 - 1-1. 75 subjects had a significance between the Sasang Constitution groups.
 - 1-2. In each Sasang Constitution group, we was able to select some significant subjects. I had selected 34 subjects in the Taeyang scale, 33 subjects in the Soyang scale, 28 subjects in the Taeum scale, and 23 subjects in the Soeum scale.
 - 1-3. When I applied the new intensifying value and calculation, the diagnostic discrimination abilities of the QSCC II was 61.8% about Taeyangin, 55.9% about Soyangin, 63.8% about Taeumin, 63.6% about Soeumin, and total average was 61.8%.

* 동의대학교 사상체질과 **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김영우 주소)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77-1 창암빌딩 303호 유원한의원 Tel) 507-1119
E-mail) rubi4117@dreamwiz.com

I. 緒 論

사상체질의학은 東武 李濟馬先生께서 <格致藁>¹⁾(1880)에 이어 <東醫壽世保元>²⁾(1894)을 完成하여 四象體質醫學論을 定立함으로써 體質醫學의 實際 臨床的 運用이 胎動하게 되었다. 사상체질의학에서는 喜怒哀樂의 性情의 差異에 의하여 惹起되는 先天的인 臟腑 大小에 따라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太陽人의 四象人을 定義하였으며³⁾, 각 體質의 特性에 따라 성질재간, 용모사기, 심성심욕, 생리병리 및 사회적 양생법 등에 있어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다⁴⁾.

四象醫學의 우수성은 많은 임상 의도로부터 歡迎을 받으면서도 體質診斷의 難易性和 客觀性에 많은 問題提起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方法의 일환으로 體質判別의 客觀化를 위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먼저 體質區別의 基準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問題가 內包되어 있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많은 研究者들은 四象體質을 分類하는데 設問紙를 利用한 方法을 基礎資料로 使用하고 있는데, 四象體質 診斷에 設問紙를 利用한 方法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高 等^{6),7)}에 의해서이다.^{6),7)} 高 等^{6),7)}의 設問紙 方法이 나온 이후 金 等⁸⁾과 李 等⁹⁾은 體質別로 새로운 設問問項을 만들어 四象體質分類檢査紙 I (이하 'QSCC I')를 構成하였고, 다시 體質分析에 不適合하거나 受檢者의 反應頻도가 낮은 問項을 削除하는 등 設問紙의 信賴度를 높이고자 設問紙의 補完作業을 進行하여 四象體質分類檢査紙 II (이하 'QSCC II')를 開發하여 사용하고 있다.^{9),10)} 한편 李 等¹¹⁾은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의 妥當化 研究에서 高 等^{6),7)}의 方法과 달리 判別式을 利用하여 分析하는 것이 더욱 四象體質을 診斷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現在 妥當度가 檢討된 設問紙로는 四象辨證

內容 設問調查紙(I)과 QSCC I, QSCC II의 세 가지 設問紙가 있는데 設問紙間의 四象體質判定の 傾向性이나 一致度에 관해서는 研究된 바가 없었다가, 박 等¹²⁾의 연구에서 設問紙間의 體質診斷 結果를 比較檢證하는 研究가 進行되었으며, 그 結果 四象體質 診斷을 위해 設問紙를 利用할 때는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I)과 QSCC II의 方法을 함께 參考하여 體質診斷에 利用하는 것이 現在까지의 設問調查 方法에서 가장 妥當한 方法이지만, 이 역시 太陽人을 判別하지 못하고 그 診斷正確率 이 떨어지는 短點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 김 等¹³⁾의 연구와 이 等¹⁴⁾의 연구에 의하여 QSCC II의 타당도가 재검토되고 아울러 태양인 판별식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저자는 경희대학교 강남경희한방병원과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체질진단 및 치료를 받고 체질이 확진된 환자 1051명을 대상으로 QSCC II를 설문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한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

1. 研究設計

本 研究은 非實驗的 研究(non-experimental design)로 四象人 體質診斷의 客觀化를 위한 설문조사의 比較檢證 研究이다.

2. QSCC II의 概要

QSCC II는 金⁷⁾의 임상심리학과와 정신 신경과에서 심리분석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설문조사방식을 응용하여 제작한 QSCC I을 바탕으로 개정된 것으로, 신체적 요소 8문항과 심성적 요소 80문항, 체질병증과 체질소증에 관한 24문항, 동기왜곡 9문항 등의 총 1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¹³⁾.

3. 研究對象 및 資料收集方法

경희대학교 강남경희한방병원과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로서, 체질진단은 사상체질전문의에 의하여 진단되었고, 최소한 4주이상의 사상체질 처방을 사용한 후 주 증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체질이 확진된 환자 10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QSCC II로 태양인 집단을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어 태양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34명의 태양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 태양인 환자는 李¹⁶⁾의 태양인 지표를 참고하여 선별하였다.

4. 研究方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一次的으로 선별된 1051명의 QSCC II 設問資料에서 121개 문항 전체를 가지고 각 문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각 문항에 대한 統計分析을 통하여 각문항의 체질집단간 유의성 및 각 체질별 유의성 검사를 실시하여 각 체질진단에 필요한 문항을 분석하였다.

2) 각 문항의 分析資料를 이용하여 太陽人을 포함하여 體質에 따라 加算點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體質判別公式을 만들고, 새로운 체질판별공식에 따라 體質을 분석한 후 設問紙의 體質判別度를 검사하였다.

5. 資料分析 方法

QSCCⅡ 문항의 체질진단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 유의성 검사 및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각 사상 집단과 기타 다른 집단사이의 반응 차이를 살펴보고 집단간 차이가 나는 문항

을 확인하였고, 분산분석을 통하여 각 문항별로 체질과의 유의성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x2 분석을 하였다. 각 집단간 판별식과 진단 정확율을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結果의 統計處理는 統計處理 Package인 SAS/pc+와 SPSS Window 8.0을 使用하였으며, P값이 最小 0.05以下의 값을 보이는 境遇 有意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Ⅲ. 結果

1. 研究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本 研究에 포함된 사례들의 性別(Table 1), 體質別 分布(Table 2)와 체질별 남녀 분포(Table 3), 체질에 따른 나이·신장·체중별 특징(Table 4, 5)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총 1051명 중 男子는 448名(46.4%)이고 女子가 558名(53.1%), 무응답이 5명이었다. 少陽人으로 진단된 者는 254名(24.17%), 少陰人으로 진단된 者는 374名(35.59%), 太陰人으로 진단된 者는 389名(37.01%), 太陽人으로 진단된 者는 34名(3.24%)이었다. 특히 체중에 있어서 太陰人의 평균체중(66.96kg)이 다른 체질에 비하여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able 1. 性別 分類表

性別	男	女	무응답	계
%	46.43%	53.09%	0.48%	100.00%
case	488名	558名	5名	1051名

Table 2. 四象體質別 分類表

四象體質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	太陽人	계
%	24.17%	35.59%	37.01%	3.24%	100.00%
case	254名	374名	389名	34名	1051名

Table 3. 體質別 男女分類表

체질	분석 대상	성 별			수집인원
		남	여	무응답	
태양인	34명	14	20	0	34명
소양인	254명	130	122	2	254명
태음인	389명	156	231	2	389명
소음인	374명	188	185	1	374명
총	1,051명	488	558	5	1,051명

Table 4. 연령대와 체질

		체질				Total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연령대	10대 이하	Count	3	11	29	30	73
		%	8.8%	4.3%	7.5%	8.1%	7.0%
	20대	Count	7	41	79	87	214
		%	20.6%	16.2%	20.4%	23.5%	20.5%
	30대	Count	8	62	85	81	236
		%	23.5%	24.5%	21.9%	21.8%	22.6%
	40대	Count	6	51	78	84	219
		%	17.6%	20.2%	20.1%	22.6%	20.9%
	50대	Count	7	48	70	49	174
		%	20.6%	19.0%	18.0%	13.2%	16.6%
	60대	Count	3	28	38	29	98
		%	8.8%	11.1%	9.8%	7.8%	9.4%
	70대 이상	Count		12	9	11	32
		%		4.7%	2.3%	3.0%	3.1%
Total	Count	34	253	388	371	1046	
	%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5. 체질과 신장·체중

		신 장(cm)	몸무게(kg)
태 양	Mean	162.79	56.12
	N	34	33
	Std. Deviation	7.24	7.62
소 양	Mean	163.88	59.23
	N	249	250
	Std. Deviation	8.30	8.91
태 음	Mean	164.31	66.96
	N	377	380
	Std. Deviation	8.07	10.25
소 음	Mean	163.73	56.71
	N	367	366
	Std. Deviation	12.95	10.83
Total	Mean	163.95	61.09
	N	1027	1029
	Std. Deviation	10.11	11.07

2. 전체문항분석

1) QSCC II 집단반응 차이 검증 결과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집단이 QSCCII 121문항에서 유의한 반응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χ^2 분석을 실시한 결과 121문항 중에서 75문항이 4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도 수준 0.10이하에서 6문항이 4집단간 차이가 있었다(Table 6).

Table 6. QSCCII 문항분석 - 체질집단간 유의성

		전체 집단
집단간 유의한 문항	P<0.05	1(①,②,③), 2(①,②,③), 3(①,②,③), 4(④), 5(①,②,③), 6(①,②,③), 7(②,③), 8(①,②), 9(①,②,③), 10(①,②), 12(①,②,④), 15(①,②,③),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32, 33, 34, 35, 39,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60, 61, 62, 63, 64, 65, 67, 69, 70, 73, 74, 75, 76, 77, 78, 79, 80, 81, 83, 87, 88, 89, 92, 95, 97, 98, 101, 108, 110, 111, 112, 117 [75문항 94항목]
	P<0.10	13(②), 26, 37, 66, 71, 94 [6문항]
집단간 유의하지 않은 문항		4(①,②,③), 6(④), 7(①,④), 9(④), 10(③), 11(①,②), 12(③), 13(①,③,④), 14(①,②,③,④), 15(④), 36, 38, 40, 41, 42, 43, 44, 45, 46, 47, 59, 68, 72, 82, 84, 85, 86, 90, 91, 93, 96, 99,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9, 113, 114, 115, 116, 118, 119, 120, 121 [48문항 57항목]

2) 각 문항별 체질에 따른 유의성 분석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체질집단간 차이와 함께 체질별 유의성 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에서 나타나는 체질별 유의성과 기존의 체질설정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았다(Table 7).

Table 7. 각 문항별 체질에 따른 유의성

번호	문항	문항유의도	체질간 유의도
1-①	당신의 체격은? 큰 편이다.(태양,태음 ^{a)})	*** ^{b)}	태음>태양 소음 소양***
1-②	당신의 체격은? 보통이다.(소양)	***	태양>소음** 태음***, 소양>소음 태음***
1-③	당신의 체격은? 작은 편이다.(소음)	***	소음>소양 태음 태양***, 소양>태음***
2-①	당신의 체형은? 뚱뚱한 편이다.(태음)	***	태음>소양 소음 태양***
2-②	당신의 체형은? 보통이다.	***	태양>소음* 태음***, 소양>소음 태음***, 소음>태음***
2-③	당신의 체형은? 작은 편이다.(소음)	***	소음 태양 소양***>태음, 소음>태양* 소양***
3-①	상하체의 관계는? 상체가 발달(태양,소양,태음)	***	태음>소음*** 태양*, 소양>소음***
3-②	상하체의 관계는? 하체가 발달	*	소음>태음* 소양*
3-③	상하체의 관계는? 상하체가 비슷(소음)	*	소음>태음*
4-④	당신의 체형은? 엉덩이 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소음)	***	태양>소양* 태음**, 소음>소양* 태음***
5-①	외모와 골격은? 골격이 굵고 살이 찐 편이다.(태음)	***	태음>태양 소음 소양***
5-②	외모와 골격은?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소음)	***	소음>태양* 소양 태음***, 태양 소양***>태음
5-③	외모와 골격은?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소양)	***	소양>태음 소음***, 태양>태음* 소음**
6-①	당신의 가슴은?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비만형)(태음)	***	태음>소양 태양 소음***
6-②	당신의 가슴은?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소음)	***	태양 소음 소양***>태음, 태양* 소음***>소양
6-③	당신의 가슴은? 넓고 튼튼한 편이다.(근육형)	***	소양>태음**, 태음>소음***
7-②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따뜻한 음식	**	소음>소양* 태음**
7-③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시원한 음식(태음)	*	태음** 소양 소음*>태양, 태음*>소음
8-①	평소 손,발이 찬 편이다.(소양,소음)	***	소음*** 소양*>태음, 소음>소양**
8-②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이다.(태양,태음)	***	태음*** 소양**>소음, 태음>소양*
9-①	당신의 걸음걸이는? 걸음은 느리고 무게있게 걷는다.(태음)	***	태음>소음 소양*** 태양**
9-②	당신의 걸음걸이는?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얇전하다.(소음)	***	소음>소양 태음*** 태양**
9-③	당신의 걸음걸이는?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소양)	***	태양>태음* 소음**, 소양>태음 소음***

a) 김³⁵⁾의 분류에 따른 척도(이하 동일)

b) '*'는 유의도 수준 P값이 0.05이하, '**'는 0.01이하, '***'는 0.001이하임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

번호	문항	문항유의도	체질간 유의도
10-①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태음)	***	태음>소양 소음***, 소양>소음**
10-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소음)	***	소음>소양 태음***, 소양>태음*
12-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태양,태음)	***	소음>태음* 소양*** 태양*
12-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소양)	***	태양 소양 태음***>소음, 소양>태음**
12-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소음)	***	소음>태음 태양 소양***, 태음>소양***
15-①	무슨 일이든지 물려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태음)	***	태양 소양 태음>소음***, 태양 소양>태음*
15-②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다. (소양)	***	소양>태음** 소음***
15-③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	소음>태음*** 태양** 소양***, 태음>소양***
16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 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소양,태음)	***	소양>태음* 소음*** 태양**, 태음>소음**
17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태양)	***	태양** 소양 태음***>소음
1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소양)	***	소양*** 태양* 태음***>소음, 소양>태음***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소양)	***	태양 소양 태음***>소음, 소양>태음**
20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소양)	***	소양 태음>소음***, 소양>태음*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태음)	*	태양>소음* 소양**
22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소음)	***	태양* 태음** 소음***>소양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소음)	***	소음>태음*** 태양** 소양***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태음,소음)	***	소음 태음>소양***
25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귀다.(소양)	***	소양*** 태양* 태음***>소음, 소양>태음***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소음)	**	소음>태음** 소양*
28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소양)	*	소양>소음**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소음)	**	소음>태음* 소양***
30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태음,소음)	***	소음>태음 소양***, 태음>소양**
31	민첩하고 용감하다.(소양)	***	소양 태양 태음***>소음, 소양*** 태양*>태음
32	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	태양 소음*>소양
33	단정하고 신중하다.(소음)	***	소음>태음*** 태양* 소양***, 태음>소양*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태양)	***	소양 태양 태음>소음***, 소양>태음***
35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	소양>소음** 태양*, 태음>소음*** 태양*

번호	문항	문항유의도	체질간 유의도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소양,태음)	***	소양 태음>소음***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태양,소양,태음)	***	소양*** 태양 태음*>소음, 소양>태음***
49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소음,소양)	*	소양>소음**
50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태음,소음)	***	소음>태음** 태양* 소양***, 태음>소양***
51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소음)	***	소음>태음*** 태양** 소양***
52	평소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소양,소음)	***	태양>소양 태음***, 소음>소양** 태음***, 소양>태음*
53	인내심이 많다.(태음,소음)	***	소음*** 태음**>소양
54	과장하기를 잘한다.(소양)	*	소양>소음* 태음**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소양)	***	태양>태음** 소음*** 소양>태음 소음***
56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간다.(소음)	**	소음>태음 소양**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소음,소양)	*	소양>소음**
58	싫증을 잘 느끼면 체념을 쉽게 한다.(소양)	**	소양>태음***
60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	소음>태음** 소양***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태양, 소양,태음)	***	소양 태양 태음>소음***
62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태양)	***	소양>태음* 소음***, 태음>소음*
6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소양)	**	소양>태양* 소음***
64	새로운 일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	소음>태음 소양***, 태음>소양*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소음)	***	소음>태음** 소양***
6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소양,소음)		소양 소음*>태음
6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	소음>태음** 소양*** 태양**, 태음>소양*** 태양*
69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소양)	***	태양>태음 소음*, 소양>태음 소음***
70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한다.	***	소음*** 태음**>소양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태음,소음)	***	소음>태양* 소양***, 태음> 소양***
74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소양,태음)	**	소양>태음** 소음***
75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소양)	***	소양>태음 소음***, 태양>소음*
76	있어도 없는 척하며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태음, 소음)	**	소음*** 태음**>소양
77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	소음>태음* 소양**
78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태양)	***	소양>태음** 소음***, 태음>소음*

번호	문항	문항유의도	체질간 유의도
79	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	태양 소양*** 태음* > 소음, 태양 > 태음*
80	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	*	소음** 태음* > 소양
81	모임이 있을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소음)	*	태양 소음* > 소양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성이다.(태양)	***	소양 태음*** > 소음
87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소음)	**	태음*** 소양*** > 소음
88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태음)	***	소음 > 태음 소양 태양***, 태음 > 소양*** 태양**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소음)	***	소음 > 태음 소양*** 태양*
92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태양)	*	소양 > 소음**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소음)	***	소음 > 태음 소양***
97	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태양)	*	태양 > 태음* 소음 소양**
98	남의 일에 열심히하면서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	소양 > 태음** 소음***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소음)	***	소음 > 태음 소양***, 태음 > 소양*
108	몸이 안좋으면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태양)	*	태양 > 태음 소양* 소음**
110	몸이 안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태음)	***	태음 > 소양** 소음*** 태양*
111	몸이 안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소음)	***	태양 > 소양*, 소음 > 태음 소양***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소음)	***	소음 > 태음** 소양***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태음)	*	태음** 소음* > 소양

3) 가중점수와 판별식을 이용한 분석

(1) 체질별 가중점수

각 체질별로 유의성이 높은 문항을 위주로 아래와 같이 체질척도문항을 찾았다. 각 체질척도문항에 체질별 가중치를 적용함에 있어 모든 문항은 1점으로 채점하나 태양2 소양2 소음2는 가중치 문항으로 2점을 주어 변별력을 높였다(Table 8).

Table 8. 각 체질별 점수 및 가중치 문항표

	count	문항번호
태양척도	태양1	2b, 2c, 5c, 6b, 8b, 12d, 17, 18, 19, 21, 22, 25, 31, 32, 34, 48, 59, 61, 69, 79, 97, 102, 103, 106, 108, 111
	태양2	1b, 4d, 9c, 10a, 12b, 14b, 15a, 52
소양척도	소양1	1c, 2b, 2c, 3a, 5c, 6c, 7c, 9c, 10a, 12b, 14b, 15a, 17, 19, 20, 25, 31, 35, 39, 48, 55, 61, 63, 69, 75, 85, 86, 88, 98
	소양2	1b, 16, 18, 34
태음척도	태음1	1a, 2a, 3a, 5a, 6a, 7c, 8b, 9a, 10a, 12b, 12d, 14b, 15a, 16, 18, 19, 21, 30, 33, 35, 39, 50, 51, 61, 70, 73, 88, 110
	태음2	
소음척도	소음1	1c, 4d, 6b, 9b, 15c, 30, 33, 50, 51, 64, 65, 67, 73, 86, 89, 95
	소음2	2c, 5b, 10b, 12d, 23, 52, 88

이상의 각 체질척도의 점수를 계산하여 판별방정식에 각 체질척도에 그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여 각 체질 판별식의 점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판별식의 체질로 진단하였다.

(2) 판별분석결과

체질점수를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판별식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아래 Table(9~11)에 제시하였다.

Table 9. Classification Function Coefficients

	체 질			
	태 양	소 양	태 음	소 음
태 양	.828	.352	.361	.339
소 양	-7.021E-02	.410	3.093E-02	.164
태 음	.533	.500	1.113	.644
소 음	.373	.449	.349	.649
(constant)	-13.638	-11.809	-12.427	-12.379

Fisher's linear discriminant

Table 10. 판별식 - Fish의 판별분석식

태양판별식	$(0.828 * \text{태양척도}) + (-7.021E-02 * \text{소양척도}) + (0.533 * \text{태음척도}) + (0.373 * \text{소음척도}) - 13.638$
소양판별식	$(0.352 * \text{태양척도}) + (0.4101 * \text{소양척도}) + (0.500 * \text{태음척도}) + (0.449 * \text{소음척도}) - 11.809$
태음판별식	$(0.361 * \text{태양척도}) + (3.093E-02 * \text{소양척도}) + (1.113 * \text{태음척도}) + (0.349 * \text{소음척도}) - 12.427$
소음판별식	$(0.339 * \text{태양척도}) + (0.164 * \text{소양척도}) + (0.644 * \text{태음척도}) + (0.649 * \text{소음척도}) - 12.379$

Table 11. Classification Result(a)

		체질	Predicted Group Membership				Total
			1	2	3	4	
original	count	1	21	5	4	4	34
		2	46	142	28	38	254
		3	36	53	248	52	389
		4	40	41	55	238	374
		ungrouped cases	1	0	2	2	5
	%	1	61.8	14.7	11.8	11.8	100.0
		2	18.1	55.9	11.0	15.0	100.0
		3	9.3	13.6	63.8	13.4	100.0
		4	10.7	11.0	14.7	63.6	100.0
		ungrouped cases	20.0	0	40.0	40.0	100.0

a 61.8% of original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IV. 考 察

현재 체질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법으로 설문지를 통한 체질진단법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QSCCⅡ이다. 하지만 최근 QSCCⅡ의 체질진단정확율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QSCCⅡ의 개선과 새로운 설문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QSCC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는 체질진단이 확진된 자를 대상으로 QSCCⅡ 설문지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QSCC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체질분포는 太陽人이 3.24%, 少陽人이 24.17%, 太陰人이 37.01%, 少陰人이 35.59%이고, 이 중에 男子는 46.4%이고 女子가 53.1%이다. 특히 체중에 있어서 태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하여 유의하게 체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체질분포에 있어서는 <東醫壽世保元>²⁾에서 동무공이 체질별로 제시한 비율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QSCCⅡ의 태양인 진단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어 태양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34명의 태양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태양인 자료의 수는 기존의 연구보다는 그 자료의 수가 많은 편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갖게 해준다고 하겠다. 하지만 안정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도 매우 부족한 수이므로 더 많은 태양인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문항에 따른 체질집단간 유의성을 살펴볼 때 (Table 6),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던 문항은 75문항이었고, 전체 문항의 1/3 정도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P<0.10인 문항이 6문항이었다. 이는 이

전의 연구에서도 자주 지적을 받은 것으로써 문항자체의 대대적인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항분석의 데이터를 보면 태양인과 소양인간의 차이가 중복되어 유의성을 떨어뜨리는 문항이 많았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방법론적으로 앞서서와 같이 태양인과 소양인에게는 $P < 0.10$ 도 유의성이 있는 문항으로 확대하여 체질진단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다른 집단에도 이와 같이 확대하여 사용할 경우 다시 진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태양인과 소양인을 선택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의성이 없는 문항에 대하여서는 수정 및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 문항분석에 있어서 네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 체질판단에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을 살펴보면 (Table 7,8), 태양인 체질판단에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34문항, 소양인 체질판단에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33문항, 태음인 체질판단에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28문항, 소음인 체질판단에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23문항이었다. 태양인의 체질판단에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이 34문항으로 다른 체질보다도 문항수가 많이 개발되었으나 태양인 집단의 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그 의의성이 크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보다 정확한 설문을 위해서는 태양인 자료의 수집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가중점수와 새로운 판별식을 토대로 체질진단을 실시한 결과(Table 9~11), 태양인의 진단정확률은 61.8%, 소양인의 진단정확률

은 55.9%, 태음인의 진단정확률은 63.8%, 소음인의 진단정확률은 63.6%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평균체질진단율은 61.8%이었다. 태양인의 진단정확률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평균진단율로 살펴보면 임상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정확률이 떨어진 다. 이러한 판별식의 진단율은 새로운 대조군에 적용하였을 때에는 대부분 그 진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단순한 문항의 수정이나 판별식의 개선만으로는 진단율을 높이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QSCCⅡ 설문지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유의성이 없는 문항을 삭제하고 각 체질간 판별력이 높은 문항을 개발하고, 아울러 체질변수별 항목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어 각 범주별 척도를 찾아냄과 동시에 비전형적인 체질인에 대한 판별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통계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설문의 특성상 재신뢰도검사*를 실시하여 설문데이터 자체의 신뢰도를 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는 설문응답을 OX방식이 아닌 다지선다형으로 하여 점수화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터를 의사결정나무법(41)과 기존의 판별방식으로 각각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각 통계방법에서 공통적인 결과와 각 통계방법이 갖고 있는 오류를 보완해 나가고, 체질진단시 판별식을 통한 점수개념이 아닌 프로파일의 패턴에 따른 분석방법을 연구한다면 진단정확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실시한 후 얻은 두 검사점수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재검사 신뢰도는 전후검사의 실시 간격 정도에 따라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즉, 시간간격이 너무 짧으면 전이나 파지가 될 염려가 있고, 시간간격이 너무 길면 그 사이에 연습 등으로 능력이 변할 수 있다. 보통 피험자의 기억이 소멸된다고 여겨지는 2주 정도로 시험의 간격을 두지만 검사 도구의 특성, 측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V. 結 論

체질감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만들어진 QSCCⅡ의 타당성을 검증토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강남경희한방병원과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체질진단과 치료를 받고 체질이 확진된 105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QSCCⅡ 121개 전체 문항에 있어서,

1-1. 각 문항에 따른 체질집단간 유의성을 살펴볼 때, 75문항이 유의성이 있었다.

1-2. 각 문항분석에 있어서 네 체질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 체질별 체질판단에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 문항은 태양인 34문항, 소양인 33문항, 태음인 28문항, 소음인 23문항이었다.

1-3. 가중점수와 새로운 판별식을 토대로 체질진단을 실시한 결과 태양인의 진단정확률은 61.8%, 소양인 55.9%, 태음인 63.8%, 소음인 63.6%로 나타났으며 평균체질진단율은 61.8%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QSCCⅡ 설문지는 유의성이 없는 문항이 많고 체질간 판별력이 높은 문항이 다양하지 못하여 QSCCⅡ 자체의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외모, 심성, 체질병증 등의 각 체질변증에 대한 새로운 문항의 개발과 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李濟馬, 格致藥. 서울 : 청계출판, 2000 : 10.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 행림출판, 1986 : 137-142.
3. 李泰浩. 實際的 東醫四象診療의 秘訣. 서울 : 행림서원, 1961 : 31-47.
4. 宋一炳. 알기쉬운 四象醫學. 서울 : 사상사. 1993 : 50-89.
5.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1985 ; 6(1) : 40-47.
6.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1987 ; 8(1) : 146-160.
7.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 ; 5(1) : 67-85.
8.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 ; 5(1) : 87-104.
9. 김선호 외2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 8(1) : 187-246.
10. 이정찬 외2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 8(1) : 247-294.
11. 이의주 외2인.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 ; 7(2) : 89-100.
12. 박성식, 박은경, 최재영. 設問紙에 의한 四象體質 判定의 一致度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 11(1) : 103-118.
13. 김태연 외 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 ; 15(1) : 28-37.
14. 이상규 외 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Ⅱ).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 ; 15(1) : 40-48.
15. 박은경 외 2인.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소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 ; 13(2) : 144-155.
16. 이상규 외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 grade 연구(Ⅱ).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 ; 15(1) : 40-48